

分 類 規 程

白 麟

本 規程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것은 아니나 分類上의 統一을 期하기 爲하여 W. S. Merrill A Code for classifiers 12版을 基礎로 하고 Sayers의 A Short course in practical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cimal and Subject schemes, 1922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에 나타난 諸 規程을 參考하여 이에 編者가 過去 經驗에 비추어 比較的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모아 이를 D. C의 順序에 따라서 亂列하는 한편 分類者에게 多少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百區分을 各 項目 別로 簡單하게 解說을 加한다음 그 項目에 該當되는 特殊規定을 付하여 編하였다.

우리나라에 分類表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分類表는 創案者에 依하여 發表된 以來 이렇다할 改訂이나 展開됨이 없이 本來의 表를 그대로 使用하는 圖書館이 있는가하면 D. C로 轉化한 圖書館도 있어 于先 D. C에 따라 編하였으니 이點 諒解해 주기 바란다. 勿論 D. C를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은 이 規程을 그대로 適用하여도 無妨할 것이며 K. D. C를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에 있어서도 一般規程은 大體로 同一한 것이니 單只 特殊規程만을 多少 變更하여 適用하면 될 것이다.

다만 淺學非才한 사람으로 充分히 檢討함이 없이 당돌하게 分類規程을 내놓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는 同時에 이와 적은 것은 規程으로서 모든 題目에 對할 規程이 될 수 없음은 미리 말하여 둔다.

끝으로 本 規程을 編함에 際하여 協力하여 준 延世大學校 附設圖書館學校學生에게 感謝하며 特히 解說을 도와준 楊炯祿君의 勞苦에 깊이 感謝하는 바이다.

目 次

- 分類의 定義
- 學問分類와 圖書分類
- 主題의 決定
- 一般規程
- 特殊規程

分類的 定義

分類은 英語로는 Classification 獨語로는 Klassifikation이라한다. 卽 事物을 種類에 따라 나눔을 말하는 것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區分에 區分을 거듭하여 어떠한 特定的 事物 또는 그에 關한 知識을 整頓하여 完全한 組織을 附與하는 行爲(Act)를 分類라 한다.

어떠한 事物을 科學的으로 研究함에는 반드시 그것의 概念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이때에 그 方法으로서 區分과 分類가 있는데 要컨대 分類는 區分의 複雜한것을 말한다 分類의 概念을 明確하게 把握하기 爲하여 區分에 對하여 먼저 說明키로 한다 區分이란 概念을 그 外延에서 부터 明確하게 規定되다 는 것 다시말하면 그 概念의 外延에 屬하는 事物을 들어 秩序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事物을 區分함에 있어서 몇가지 注意해야 할것은:

1) 區分코저 하는 事物全體에 共通되는 根本的인 性質의 差別을 基礎로 하여 區分해야 한다.

2) 區分의 要目 卽 區分原理(Principle of Division)는 恒常 唯一個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區分되는 區分肢(member of Division)는 重合되어 所謂 交叉 區分에 陷入하는 잘못이 생기게 된다.

3) 區分된 部分 卽 區分肢는 相互排他的이어야 한다.

4) 區分에 있어서는 남음이 없이 그 外延에 屬하는 一切를 包含해야 한다.

5) 區分은 飛躍의 어서는 아니되며 順次的 漸進的으로 進行되어야 한다 卽 一旦 區分한 것을 다시 副區分(subdivision)하고 다시 또 細區分하여 이를 그 外延에 있어서 完全한 體系를 形成하는 것이면 이를 分類라고 말한다 嚴密하게 따진다면 分類는 區分의 反對되는 過程으로 前者는 體系化이고 後者는 區別이다 그러나 그 結果에 있어서는 同一한것이 된다. 卽 類概念을 種概念으로 區別해 가는 것과 이에 反對로 實際로 存在하는 여러 種類의 事物을 그들 種類에 共通되는 性質에 따라서 一層더 큰 種類 卽 구루프(Groupe)로 整頓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分類는 自然的分類 或은 科學的분類와 人爲的분類의 두 種類로 區別한다. 自然的分類란 卽 分類코저하는 事物의 本質的 屬性에 依據하여 分類하는 것으로 이때에 하나의 本質的 屬性은 他的 比較的 根本的인 屬性和 結合되어 있으므로 그 分類의 結果는 그 自體가 所謂 自然的種類 또는 實在의 種類와 一致하게 된다 例를 들면 動植物學者가 動植物을 分類할때에 單只 外見上 差別에 依하지 않고 그 本質的 屬性에 따라 分類함은 그 適例라 하겠다 이와 같은 點에서 圖書의 分類 도다는 아니지만 그 圖書에 取扱된 內容 卽 主題에 따라 分類한다는 點에서 어느 程度 自然的分類 또는 科學的분類라고 말할

수 있다 人爲的分類는 그 事物의 本質의 屬性에 關係치 않고 任意的 偶有性 또는 그렇게 緊要치 않은 性質을 分類의 原理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分類에 있어서도 區分枝는 어떤 것이나 그에 選擇된 偶然的 性質을 共有하고 있으나 그 外의 다른 點에서는 오히려 類似하지 않다는 것이다. 例를들면 圖書를 大, 中, 小로 그 型態에 따라 區別한다든가 또는 目錄을 編成하는때에 著者名의 알파벳 또는 가나다 順에 의하여 配列함은 目錄上의 分類로서 이 人爲의 分類의 適例이다 어찌던 人爲의 分類는 自然的 分類에 比하여 科學的 價値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不完全한 分類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實用上의 目的을 爲하여는 가장 便利한 方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知識의 分類와 圖書의 分類

知識의 分類에 있어서는 그것이 常識的知識이던 科學的知識이던 또는 哲學的知識이던 그 學問의 分野 또는 對象과 方法(態度) 如何에 따라 여러 方面으로 生覺할 수 있다. 圖書의 分類에 있어서도 그것이 人間의 知識을 收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知識의 分類와 다를바 없다고 하겠다. 단지 圖書는 物質로서 構成되었다는 點에서 物質的 法則이 考慮되어야 한다.

먼저 知識의 分類에 關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知識을 分類함에는 우선 分類코저하는 事物에 對한 概念을 明白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概念의 定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概念이 屬하는 가장 가까운 類概念을 들고 그 類概念이 體系中에서 그것이 占有하는 位置를 明確히 하고 나아가 그 種差 即 그 概念과 等位의 概念과의 區別되는 特異性을 發見하여 다른 類似한 것과 區別한다. 이것이 所謂 論理的 分類法이다. 이와같이 圖書의 分類에 있어서도 그 內容은 곧 知識이고 讀者에게 그 內容을 읽게 한 것이니 圖書의 生命은 그에 取扱한 그 內容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論理的인 分類法이 要求된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이 圖書는 物質로서 構成되었으며 또한 圖書館에 있어서 같은 主題 또는 類似한 內容의 圖書를 類聚하여 이에 秩序를 주고 整頓配列하여서 利用上 便利하고 時間의 으로나 努力에 있어서 가장 經濟的으로 찾게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實用上에 適應할 수 있는 分類方法이 또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實際的인 分類法이다 그러나 그 根本的인 法則은 어디까지나 類似的 法則이나 類似的 法則이라 함은 事物의 順序의 普遍的 原理를 말하는 것이다.

事物은 既히 그 類似에 따라 自然中에 類集되어 있든가 또는 類似에 따라 사람의 마음 속에 또는 外界의 事物中에 類集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事物中에서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自然的으로 排列된 것을 우리는 自然(Nature)이라 하며 觀念을 그 類似에 따라서 排列한 것은 知識이라고 한다. 그리고 事

물을 그 類似에 따라서 사람에 依하여 排列된 것을 藝術(Art)이라고 말한다. 어찌던 類似라는 點에서는 何等 다를바 없다. 그리고 이 類似는 順序에 따라 그 位置가 決定된다. 이제 圖書分類의 順序를 살펴보면 다음의 두 例와 같이 六 階段 또는 五 階段의 過程을 거쳐 그 順序의 位置가 決定된다.

(例) 李丙燾 著 高麗時代의 研究

圖書分類의 題 六 個 原 則	{	(1) 歷史……主題 ……論理的	} 自然的 順 序
		(2) 韓國……主題의 地域의 限界	
		(3) 高麗時代…主題의 時代의 限界	
		(4) 가나다順 이병도	} 實際的 (人爲的) 順序
		(5) (번역서인 경우) 言語別	

五 個 原 則	{	(1) 政治學……主題 ……論理的	} 實際的 人 爲의 順序
		(2) 史……形式	
		(3) 게텔……저자記號	
		(4) 한국어…言語別	
		(5) 再版……版 次	

(例) R.G. 게텔 著 金敬洙 譯 政治學說史 4293年(再版)

6. 出版年度(版次)……

위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의 分類는 大概 論理的 分類와 實際的 分類가 結合되어 그 個別的인 位置가 決定된다.

主題의 決定

圖書를 分類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그 圖書에 取拔된 主題가 무엇인지 明確히 알아야 한다. 主題의 決定에 앞서 다음의 事項에 對하여 慎重히 檢討해야 한다. 卽 그 책이 무엇에 關하여 쓴것이냐 著者의 意圖하는 바가 어디 있는지 또 한 어떤 層의 讀者에게 가장 有用할것인가를 注意깊게 살펴본다.

그러기 爲해서는 標題紙에 나타나 있는 書名, 副書 著者의 專攻分野, 出版社의 特色等を 檢討하여 그 主題 및 그範圍 傾向에 對한 인포메이션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을 標題紙에서 얻을 수 없을 때는 序文을 읽어 그 內容의 골자나 趣旨를 알고 內容目次를 檢討하여 內容編成을 보고 그 主題의 힌트를 얻는다. 이렇게 해도 애매할 境遇에는 本文中의 몇곳을 읽어서 그 主題를 決定 해야 한다.

一 般 規 程

(1) 圖書는 처음 그 主題에 依하여 分類하고 다음 그 主題가 다루어진 形式에 따라 分類한다.

- 但 總類와 文學은 그 形式이 主가 됨으로 이 規定의 適用範圍에서 除外된다
- (2) 主題를 決定함에는 그 圖書의 主要傾向 또는 뚜렷한 目的 및 著者의 意圖가 어디있는지를 考慮해야 한다.
- (3) 그 圖書館의 特殊性 및 對象이되는 讀者를 考慮하라.
- (4) 그 圖書를 쉽게 發見할 수 있는 곳에 分類할 것이 아니라 永久히 利用할 수 있는 主題下에 分類하라.
- (5) 그 圖書가 特定 主題의 두 部門을 다룬 것은 그 中 가장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한 題目下에 分類하고 다 같이 重要하여 그 決定이 어려울 때는 첫 題目下에 分類하라.
- (6) 보다 큰 主題의 세 以上의 小題目을 다룬것은 그것들을 포함한 全體主題下에 分類하라. 그러나 著者의 意向이 그들中 어느 한 主題에 對하여 特히 強調하였던가 또는 敘述分量으로 보아 特히 優勢한 境遇에는 그 題目下에 分類하라.
- (7) 두 個의 意見 또는 政策을 對照的으로 取扱한 圖書는 그 主張者의 意見 또는 政策에 따라 分類하라.
- (8) 分類者의 批判을 가한 分類는 피할 일이며 어떤 主題에 對한 贊否兩論 것은 될수있으면 한곳에 分類함이 좋다.
- (9) 主題의 發生的 또는 進化的研究는 그 波生된 主題下에 分類하라.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玉稿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事業에 關係되는 論文
2. 뉴스 資料
3. 其他

磨勘 每月 15日

(編輯室白)